

성결적 “순복음”(Full Gospel, 純福音)의 기원, 역사와 의미

이 창 승

| 순복음총회신학교, 조직신학 |

jesusgate@daum.net

국 문 초 록

“Full Gospel”(純福音, 순복음)은 성결운동에서 중요한 용어이지만, 그 용어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과 그 의미에 대한 포괄적인 대답이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또한 Full Gospel에서 “純福音”으로 번역된 이유와 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영문 “Full Gospel”의 보다 정확한 생성과 추이, “Full Ggospel”이 한자어 “純福音”으로 번역되고 한글 “순복음”으로 전달된 과정과 그 용어에 담겨온 의미를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성결운동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헌적 자료가 허락하는 한 개괄적으로 살핀다. “Full Gospel”이란 용어는 1839년에 미국 성결운동가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가 맨 처음으로 문서화한 것이며, “純福音”이란 용어는 일본인 성결운동가 나카다 류우지(中田重治)가 1906년 설교에서 처음 문서화한 것이다. “순복음”이란 용어는 이장하 등 한국의 초기 성결운동가들에 의해 1908년부터 한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1923년경부터 문서화된 것이다.

성결운동가들에게 Full Gospel (純福音, 순복음)은 교회사 속에서 부분화되고 경시되기도 했던, 고등비평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적이고, 성령적이며 사도적인 복음의 전체가 회복된 온전한 복음으로서 “중생, 온전한 성화,

신유, 재림” 등등 다중적 측면들을 갖는다. 그리고 성결적 순복음은 “온전한 성화”와 “성령침례”를 동일한 범주로 간주했다. 피니와 마한에게 Full Gospel은 칭의와 성화를 포함했다. 보드만의 Full Gospel이 피니와 마한의 Full Gospel과 다른 점은 신유가 포함된 것이다. 심슨은 그 이전 피니와 마한, 그리고 보드만이 제시했던 Full Gospel을 보다 조직적으로 정립했으며, 중생, 성화, 신유라는 주제에 재림을 더해 사증화시켰다. 뱀에게 Full Gospel은 고등비평에 파괴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이었다. 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주우지, 정빈, 이장하 등 일본과 한국의 성결운동가들은 Full Gospel을 무엇보다 고등비평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복음으로 이해하고, “全福音”보다는 “純福音”이라고 번역하고, 의미를 부여했다.

I. 들어가는 말

“Full Gospel”(純福音, 순복음)은 성결운동에서 중요한 용어이다. 그런데 “Full Gospel”이라는 용어는 누구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는가? “Full Gospel”을 한자로 “純福音”이라고 번역한 사람은 누구인가? “純福音”을 “순복음”이라는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또한 역사 속에서 그 용어에는 어떤 의미들이 부여되어 왔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위한 부분적인 시도는 있어 왔지만, 역사적인 고찰과 그 의미에 대한 포괄적인 대답은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순복음의 기원에 대한 기존의 주장은 반박될 만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성결신학자 홍용표는 “Full Gospel”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만국성결교회(한국성결교회 모체) 창립자 마틴 웰스 뱀(Martin Wells Knapp)이었고, Full Gospel을 한자로 “純福音”이라고 번역한 사람은 일본인 나카다 주우지(中田重治)였으며, 만국성결교회에서 1905년 세운 한국성결교회 첫 통역 이장하가 한자식 한

글로 “순복음”이란 말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홍용표는 만국성결회의 1900년 『헌법』이 만국사도적성결연맹은 “온전한 복음의 전파는 사도와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대로 성경적 성결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¹⁾ Full Gospel은 물론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만국성결교회가 파송한 카우만(Lettie Burd Cowman)과 나카다 주우지(中田重治)의 東洋宣教會 일본성결교회(New Japan Holiness Church Nihon Seikyodan)가 만국성결교회 1897년 헌법에 나오는 Full Gospel을 일본식 한자 “純福音”이란 말로 1901년 번역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純福音”이 한국성결교회 헌법과 책자들에서 일본에서지만 1905년부터 우리말 “순복음”으로 번역되었다고 주장한다.²⁾ 그러나 홍용표의 주장과는 달리 “Full Gospel”이란 용어는 1839년에 미국 성결운동가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가 맨 처음으로 문서화한 것이며, 반면에 “純福音”이란 용어는 홍용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인 성결운동가 나카다 주우지(中田重治)가 처음으로 사용하고, 1906년에 문서화한 것이다. “순복음”이란 용어는 이장하 등 한국의 초기 성결운동가들에 의해 1908년부터 한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1923년경부터 문서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영문 “Full Gospel”의 보다 정확한 생성과 추이, “Full Gospel”이 한자어 “純福音”으로 번역되고 한글 “순복음”으로 전달된 과정과 그 용어에 담겨온 의미를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성결운동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헌적 자료가 허락하는 한 개괄적으로 살필 것이다.³⁾

1) “The preaching of a Full Gospel is essential to Bible Holiness and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as exemplified by the Apostles and the primitive Church.” International Apostolic Holiness Union,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International Apostolic Holiness Union* (Cincinnati: The Revivalist Office, 1900). Art. 1.

2) 홍용표, “‘순복음’ Full-Gospel이란 말을 누가 조어했고 누가 번역했나?,” <http://blog.daum.net/hongpyp/28> (accessed January 8, 2017).

3) 필자는 오순절주의자로서 순복음의 역사와 그 의미를 연구하기 시작했었다. 연구 시작 전

성결운동가들에게 Full Gospel(純福音, 순복음)은 과거에 교회사 속에서 부분화되고 경시되기도 했던, 현재에 고등비평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적이고, 성령적이며 사도적인 복음의 전체가 회복된 온전한 복음으로서 “중생, 온전한 성화, 신유, 재림” 등등 다중적 측면들을 갖는다. 그리고 성결적 순복음은 “온전한 성화”와 “성령침례”를 동일한 범주로 간주했다.

II. 미국 성결운동과 Full Gospel

1. 피니, 마한, 그리고 보드만과 Full Gospel

확인할 수 있는 Full Gospel의 기원은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였다. 그는 1839년에 “full gospel salvation”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의 보잘것없는 성취로 인해 낙심하고 있다고 보았다. 피니는 그들의 견해에 동조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복음적 구원”(full gospel salvation)을 잘 모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태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⁴⁾ 슬라보키아의 하네스는 피니가 Full Gospel을 언급

에는 초기 오순절주의자들이 Full Gospel을 사용하기 전에 A. B. Simpson이 그 용어를 사용했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이전에 많은 미국과 일본의 성결운동가들이 그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연구 결과가 하나의 논문에 담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져 단행본 수준에 이르러버렸다. 그래서 순복음을 세 가지로, 즉 “성결적 순복음,” “오순절적 순복음,” 그리고 “은사적 순복음”으로 분류하고, 세 덩어리로 나누었다. 본 글은 그 첫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오순절적 순복음 탐구를 위한 예비적 연구를 밝힌다.

- 4) “Many are discouraged by the present and past attainments of Christians. They are constantly stumbled by the consideration that holy men of former and present times have known so little of full gospel salvation. They might just as reasonably let the past and present state of the world shake their confidence in the fact that the world will ever be converted.” Charles G. Finney, “The Rest of Faith,” Professor Finney’s Lectures,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1839년의 언급이 아닌 1842년의 언급을 예로 들었다.⁵⁾

피니의 1842년 “Full Gospel” 언급은 성결적이었다. 그는 그 14명의 목사 안수식 설교에서 그들에게 “Full Gospel”을 설교하라고 권했다. 그의 권면은 칭의를 넘어 성화에까지 확장되었다. 피니는 그들에게 단지 죄인들을 회심시켜 칭의를 얻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도들의 완전하고 보편적인 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 목적에 맞는 복음을 설교하라고 역설했다.⁶⁾

아사 마한(Asa Mahan)은 1858년 이전에 Full Gospel을 언급했다. 그는 1894년에 기록되었지만 1858년 이전에 오벌린(Oberline)에서 행했을 한 설교에서 Full Gospel에 대해 말했다. 마한은 그 설교의 내용을 1894년에야 기록했지만, 그 기록에서 그는 그 설교를 과거에 행했던 것으로 회고했다. 그리고 윌리엄 보드만(William E. Boardman)은 1858년에 쓴 글에서 마한이 Full Gospel을 설교했다고 회고했다.⁷⁾ 그러므로 마한은 1858년 이전에 Full Gospel을 말했던 것이다. 마한은 그 설교를 자신이 행한 Full Gospel에 대한 첫 번째 설교였다고 회상했다.

Lecture XVI, *The Oberlin Evangelist* (September 11, 1839: *The GOSPEL TRUTH*, http://www.gospeltruth.net/1839OE/390911_rest_of_faith_1.htm (accessed January 11, 2017).

5) Pavel Hanes, “What is the ‘Full Gospel’?,” <http://www.pavelhanes.sk/wp-content/uploads/2015/10/What-Is-Full-Gospel.pdf> (accessed January 12, 2017).

6) “See that you preach a FULL GOSPEL. Do not satisfy yourselves, my brethren, with the mere conversion of sinners. Aim at the entire and universal sanctification of saints. Preach a gospel suited to this end ... Preach not justification merely, but sanctification, in all its length and breadth.” Charles G. Finney, “Sermon by Professor Finney: Preached at the Ordination of Fourteen Yong Men (Aug. 22, 1842),” *The Oberlin Evangelist* (September 28, 1842: *The GOSPEL TRUTH*, <http://www.gospeltruth.net/oe/oe42/oepl56.htm> (accessed April 4, 2016), 156.

7) “They [Mahan and Finney] began then to preach the Full Gospel gospel as they then for the first time apprehended it. Power attended the preaching.” William E. Boardman, *The Higher Christian Life* (Boston: Henry Hoyt, 1858: <https://archive.org/details/higherchristianlife00boardrich> (accessed February 5, 2017), 66.

마한에게 Full Gospel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과도 관련된다. 그에 따르면 Full Gospel은 복음의 중심적 진리들로서 우리의 “지혜(wisdom), 의(righteousness), 성화(sanctification), 구속(redemption)”으로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약속”에 대한 것이다. 마한은 그 Full Gospel에 대한 첫 번째 설교 이후로 설교할 때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려했다.⁸⁾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풍성하고 값없는 공급”(in Christ a full and rich and free supply)보다 영혼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⁹⁾ 또한 마한에게 그 성화를 위한 능력은 성령침례를 통해 부여되는 것이었다. 그는 성령침례를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거룩한 삶과 사역을 위한 위로부터 오는 능력 부여”(an endowment of power from on high for holy living and work)로 규정했다.¹⁰⁾

윌리엄 보드만은 피니와 마한이 Full Gospel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그들에게 Full Gospel은 먼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칭의를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화를 주시는 분이심에 대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¹¹⁾ 그에게도 Full Gospel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칭의와 성화

8) “Such is the exact substance of the first full gospel sermon that I ever preached in my life. It may be considered somewhat remarkable that the doctrine of Christ as our ‘wisdom, righteousness,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and ‘the promise of the Spirit,’ as the great central truths of the gospel, should have been presented to my mind at one and the same time.” Asa Mahan, *Out of Darkness into Light, or, The Hidden Life Made Manifest through Facts of Observation and Experience: Facts Elucidated by the Word of God* (London: Wesleyan Methodist Book Room, 1894): <https://archive.org/details/outofdarknessint00maha> (accessed February 7, 2017), 147.

9) Asa Mahan, *Autobiography: Intellectual, Moral, and Spiritual* (London: T. Woolmer, 1882): <https://archive.org/stream/autobiographyint00maha#page/318/mode/2up/search/in+Christ+a+full+and+rich> (accessed February 10, 2017), 318.

10) Mahan, *Autobiography*, 354.

11) “The Lord Jesus Christ must be, and was their sanctification, as already they had before received him as their justification. They [MAHAN; FINNEY] began then to preach the full gospel as they then for the first apprehended it.” Boardman, *The Higher*

를 내포했다.

보드만의 Full Gospel이 피니와 마한의 Full Gospel과 다른 점은 신유가 포함된 것이다. 그에게도 Full Gospel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 즉 칭의와 성화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드만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유에까지 Full Gospel을 확장시켰다. 그는 Full Gospel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아픈 것과 질병을 고치신 것을 포함한다.”라고 주장했다.¹²⁾ 보드만에게 Full Gospel은 삼중적이었다.

2. 심슨과 Full Gospel

알버트 심슨(Albert B. Simpson)은 1890년에야 Full Gospel을 언급했다. 이때는 피니가 1839년에 Full Gospel을 언급한 지 50여 년이 지난 후였다. 심슨은 복음 성막에서 가진 1890년 3월 대회와 개회식에서, “사중복음”(Fourfold Gospel)이라는 표현은 그가 영감에 의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¹³⁾ 그는 1888년에 쓴 『사중 복음』(*Fourfold Gospel*)이란 책에서 “세상은 현재 대항자들이 그 온전한 구원을 실시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라고 말하며 “full salvation”을 언급했다.¹⁴⁾ 그리고 그는 1890년에 쓴 『치유의 복

Christian Life, 66.

12) “The ‘Full Gospel’ includes doing what Christ did and healing every sickness and every disease among the people.” William E. Boardman, *The Lord that Healeth Thee (Jehovah-Rophi)* (London: Morgan and Scott, 1881), 49.

13) John Sawin, “The Fourfold Gospel,” *The Birth of A Vision: Essays on the Ministry and Thought of Albert B. Simpson, Founder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David F. Hartzfeld and Charles Nienkirchen, eds. (Beaverlodge, Alberta: Buena Books, 1986): 3–6, 18 n. 10.

14) “The world must wait until the present agencies have wrought out its full salvation.” Albert B. Simpson, *Four-fold Gospel* (New York: Word, Work & World Pub-

음』(*Gospel of Healing*)에서 “우리는 온전한 구속의 복음을 위해 두려움 없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거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며 “the Gospel of full redemption”을 언급하기도 했다.¹⁵⁾ 그는 『치유의 복음』에서 비로소 “a full Gospel”이란 용어를 제시하기에 이른다.¹⁶⁾

심슨은 Full Gospel을 Fourfold Gospel과 동일하게 여겼다. 그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Fourfold Gospel이 full salvation 또는 full redemption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fourfold”를 “full”이라는 형용사와 연결하고 동일한 의미로 풀이한 것이다. 심슨은 “a full Gospel”의 진정한 영향력은 “사람들의 구원”(the salvation of men)을 일으킨다고도 말했다.¹⁷⁾ 이처럼 심슨에게 Fourfold Gospel과 Full Gospel은 구원을 중심으로 서로 중첩되는, 동일한 구원을 일으키는 다른 단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lishing Company, 1888), 92 [or 3rd ed. rev. 1890, 133]: <https://archive.org/stream/fourfoldgospel00simp#page/132/mode/2up/search/full+salvation> (accessed February 15, 2017).

15) “We must be fearless and faithful witnesses to the Gospel of full redemption.” Albert B. Simpson, *The Gospel of Healing* (New York: Christian Alliance Publishing Company, 1890), <https://www.cmalliance.org/resources/archives/downloads/simpson/the-gospel-of-healing.pdf> (accessed February 20, 2017).

16) “All Lydda and Saron saw it, and turned to the Lord. The true effect of a full Gospel of supernatural power and might is always spiritual results.” Ibid., V. Scripture Testimonies “Eneas at Lydda.” Wikipedia는 Full Gospel의 기원을 심슨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성구를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πεπληρωκέναι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οῦ Χριστοῦ] 전하게 전하였습시다”)에 두었다. “Full Gospel,”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Full_Gospel (accessed May 3, 2016). 또한 양재철도 Full Gospel의 기원을 심슨에 두었다. 그는 “순복음”의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 “심슨(Simpson) 목사의 사증복음(Full Gospel)에서 나온 ‘Full’(가득한)을 ‘충만한’을 의미하는 ‘순’으로 바꾸어 ‘순복음’(Full Gospel)으로 번역한데서 나온 명칭이다.”라고 썼다. 양재철, 『한국오순절교회의 신앙과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늘모장, 2005), 323. Full Gospel의 심슨 기원설은 바로잡혀야 한다.

17) “The true effect of a full Gospel of supernatural power and might is always spiritual results, and the salvation of men.” Simpson, *The Gospel of Healing*, V. Scripture Testimonies, “Eneas at Lydda.”

심슨은 그 이전 피니와 마한, 그리고 보드만이 제시했던 Full Gospel을 보다 조직적으로 정립했으며, 중생, 성화, 신유의 표제에 재림을 더해 사증화시켰다. 심슨에게 Full Gospel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함을 담고 있다. 그는 *Fourfold Gospel*을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계 7:10)는 말씀을 인용하며 시작한다.¹⁸⁾ 그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고는,¹⁹⁾ 그리스도의 사증직을 인간의 구원은 물론 세 가지 다른 영역들에도 할당시켰다. 심슨은 그 책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Christ Our Saviour), “그리스도 우리의 성화자”(Christ Our Sanctifier),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Christ Our Healer), “그리스도 우리의 다시 오실 주님”(Christ Our Coming Lord)이라는 네 가지 주제들로 채웠다. 그는 그런 “값 없고 온전한 구원의 복음”(the Gospel of full and free salvation)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난다고 말했다.²⁰⁾ 심슨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성화자시며, 치료자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소식은 사증적 복음이었다. 심슨은 그 Fourfold Gospel, 즉 Full Gospel이야말로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적 삶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유일하게 온전하고 완전한 지식”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²¹⁾ 심슨에게 몸의 치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가 아닌

18) Simpson, *Four-fold Gospel*, 7.

19) Ibid., 9.

20) “New Testament times, and shines with the light of the Gospel of full and free salvation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Albert B. Simpson, *The Holy Spirit: Or, Power from on High, an Unfolding of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New York: Christian Alliance Publications, 1895: https://archive.org/stream/holyspiritpowe00simp_0#page/322/mode/2up/search/with+the+light+of+the+Gospel+of+full (accessed February 26, 2017), 323.

21) “It is only the full and perfect knowledge of what Christ is and does for us that can bring us to a full and perfect Christian life.” Albert B. Simpson, *The Cross of Christ* (New York: Christian Alliance Publishing Company, 1910), 160.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심슨은 『신유의 복음』(*Gospel of Healing*)에서 “나는 신유(divine healing)가 그 복음(the gospel) 자체로 간주되어야만 한다고 결코 생각한 적이 없다. 신유는 그 복음의 부분이다(It is part of it).”라고 말했다.²²⁾

심슨은 Full Gospel을 인간의 구성의 모든 요소들, 즉 영과 혼과 몸, 즉 전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보았다. 그는 “a full Gospel for spirit, soul and body”란 문구를 사용했다. 그는 삼분설에 따라 인간의 요소를 영(spirit)과 혼(soul), 그리고 몸(body)으로 보고,²³⁾ Full Gospel은 한 가지 요소만이 아닌 이 세 가지 요소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심슨에게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salvation)은 기본적으로 영의 “거듭남”(be born again)이며,²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혼의 성화자시고,²⁵⁾ 그리스도 몸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몸이 고침을 받는다.²⁶⁾ 이렇게 심슨은 Full Gospel을 인간의 요소들 중에서 영이나 혼이나 몸만을 위한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full) 구성 요소들(영과 혼과 몸)을 위한 복음으로 규정했다.

심슨은 Full Gospel을 신약 시대의 복음이며, 또한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람을 구원하는 종말 시대의 복음으로 이해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고 값없는 구원의 복음”(the Gospel of full and free salvation)이 빛나고 있는 시기는 “신약 시대”와 중간을 뛰어넘어 현재라고 규정했다. 그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한 복음의 빛과 함께 신약 시대를 지칭하며, 또한

22) “I have never felt that divine healing should be regarded as the gospel. It is part of it.” Simpson, “Testimony of the Work,” *The Gospel of Healing*, VII; cf. Charles F. Parham ed. *The Apostolic Faith* 2. 3 (Topeka, KS: January, 1900): 3.

23) Albert B. Simpson, *Service for the King* (New York, NY: Christian Alliance Publishing Company, 1900: <https://www.cmalliance.org/resources/archives/downloads/simpson/service-for-the-king.pdf> (accessed February 18, 2017)).

24) Simpson, *Four-fold Gospel*, 9.

25) Ibid., 59.

26) Ibid., 98.

지금 “빛나고 있다(shines).”라고 보았다.²⁷⁾ 그런데 그에게 그의 시대는 요엘을 통해 약속된 것처럼 세상에 마지막 성령의 큰 부으심이 있는, 주님의 재림 직전이며, 그는 이 종말의 시기에 Full Gospel이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다고 파악했다.²⁸⁾

Full Gospel은 심슨에게는 초월적 능력과 권능,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이 동반되는 복음이었다. 심슨은 베드로에 의해 룻다의 애니아에게 일어난 이적(행 9:34)을 언급하면서 Full Gospel을 “초월적 능력과 권능”과 연결시켰다. 그는 “a full Gospel of supernatural power and might”라는 어구를 사용한 것이다. 그에게 Full Gospel은 사람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적 능력이나 권능이 아닌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부여하시는 능력과 권능을 동반한다. 심슨은 이 초월적 능력과 권능을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mighty signs and wonders)이라고도 불렀다.²⁹⁾

심슨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담고 있는 Full Gospel은 이 세상 모든 선교지에서 필요한 복음이다. 심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부분이 아닌 “복음의 온전함”(the Gospel in its fullness)을 우리에게 위탁해 오셨는데, “복음의 온전함”은 곧 Full Gospel이다.³⁰⁾ 그리고 이 너무도 온전한 복음은 세상의

27) “But it [this promise] has also a distinct reference to the New Testament times, and shines with the light of the Gospel of full and free salvation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Simpson, *The Holy Spirit*, 240.

28) “The true effect of a full Gospel of supernatural power and might is always spiritual results, and the salvation of men. And through these mighty signs and wonders will come, Joel tells us, the last great outpouring of the Spirit upon the world, and the awakening of men before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Simpson, *The Gospel of Healing*, V. 심슨에게 신약 시대와 재림 직전 시대의 중간 시대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불모의 시대 어둠의 시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심슨의 ‘신약 시대’와 ‘중간이 제거된 재림 직전 시대’라는 Full Gospel의 시대에 대한 이해는 후에 오순절주의자들이 교회사를 바라보기 위해 개발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9) Ibid., V. Scripture Testimonies, “Eneas at Lydda”.

30) “The Lord is asking for millions today to spread His gospel in its fullness over the

모든 선교지가 필요로 하는 복음(a gospel is so full that it needs a world for its field)이다.³¹⁾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온전함, Full Gospel을 모든 곳에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심슨이 Full Gospel의 전파를 선교의 핵심으로 삼은 것은 이후 성결운동의 선교와 오순절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3. 뱀과 Full Gospel

뱀(Martin Wells Knapp)은 홍용표의 주장과는 다르게 심슨이 1890년에 처음으로 Full Gospel이란 용어를 사용한 지 11년 후에 비로소 그 용어를 사용했다. 뱀은 1901년 5월에 “만국사도적성결연맹”(the International Apostolic Holiness Union)을 세우면서 그 헌법에 “Full Gospel의 전파가 성경적 성결에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썼다.³²⁾ 그리고 그 교단의 공식지인 *God’s Revivalist*는 동년 7월에 “Full Gospel Camp–Meetings”이란 글을 게재하였다.³³⁾

뱀에게 Full Gospel은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복음이며 따라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이다. 뱀은 1902년에 자기가 가르치는 것은 Full Gospel이며, 그 Full Gospel은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대로”(as found in the New Testament) 복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기가 Full Gospel을 전파하며 조직해 온 것은 사회들이 아니고, 신약성경적 원리들 위에 세워지는 산 교회

world, and we to whom this full gospel has been such a blessing are especially called to take it as our trust for Him and send it everywhere.” Albert B. Simpson, *A Larger Christian Life* (New York, NY: Christian Alliance publishing Company, 1890): <https://www.cmalliance.org/resources/archives/downloads/simpson/larger-christian-life.pdf> (accessed February 27), 281.

31) “God has given us in this blessed work a gospel so full that it needs a world for its field.” Ibid., 278.

32) International Apostolic Holiness Union, *God’s Revivalist and the Bible Advocate*, 13–14.

33) “Full Gospel Camp–Meetings,” *ibid.*, 10.

(living Church that is on New Testament principles)라고 주장했다.³⁴⁾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토를 “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ible!)로 삼았다.³⁵⁾ 그러므로, 그에 따르면, Full Gospel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the Full Gospel which He [Jesus] teaches)이다.³⁶⁾

냅은 Full Gospel이란 복음의 부분이 아닌 전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의 삶의 열망은 Full Gospel을 전하는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Full Gospel을 따라 예수를 전적으로(fully) 따르는 것인데, 그 Full Gospel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온전하신 뜻(whole will)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그에게 Full Gospel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everything)을 담은 것이다.³⁷⁾ 그는 자기가 예수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것(all)인 the Full Gospel을 전적으로 따른다면, 복음의 한 부분(a part)만을 취하는 데 만족하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³⁸⁾

냅에게 Full Gospel은 전체적인 복음인데, 그래서 Full Gospel은 여러 측면을 갖는 다중적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심슨은 복음을 사중적(the Fourfold Gospel)으로 파악했었다. 그런데, 홍용표에 의하면, 냅은 심슨의 『사중복음』을 자기가 주도하던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냅이 복음을 사중적인 것 그 이상으로 더 다중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홍용표의 표현에 따르면, 냅은 “the multifold Full Gospel”을 강조했

34) M. W. Knapp, *Pentecostal Letters, Selected from the Correspondence of M. W. Knapp* (Cincinnati: Office of God's Revivalist, 1902), “Dear Brother P,” Part 1 TO OLD FRIENDS.

35) Ibid., “Dear Brother J,” Part 10 MISCELLANEOUS TOPICS.

36) Ibid., “To An Evangelical Pastor,” Part 13 Extracts from Other Letters.

37) Ibid., “Dear Brother J.”

38) Ibid., “To An Evangelical Pastor.”

다.³⁹⁾ 실제로 냅은 “복음은 단지 ‘사중적’이지 않고, 다중적이다(the gospel is not only ‘fourfold,’ but manifold).”라고 말했다.⁴⁰⁾

냅의 다중적인 Full Gospel은 성결과 능력을 함께 품고 있던 것이었으며, 신유 등 다양한 측면들을 담고 있었다. 번디에 따르면, 냅의 Full Gospel은 신자들의 성화(sanctification)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이 성화는 인격적 정결(personal purity)과 증거/전도/선교를 위한 능력(power for witness/evangelism/mission)이라는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⁴¹⁾ 또한 냅의 Full Gospel은 신유를 포함했다. 그는 신유가 모든 일반적 축복들(all general blessings)과 동일하게 속죄 안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에게 신유는 복음의 한 부분이며, 신유를 한 부분으로 담고 있는 복음은 다중적(manifold)이다.⁴²⁾ 냅의 다중적인 Full Gospel에는 “오순절적 성령침례,” “오순절적 회심,” “오순절적 성화,” “오순절적 은사들,” “오순절적 부흥,” “오순절적 나눔,” “오순절적 가정,” “오순절적 교회” 등 다양한 측면들이 담겨 있었다.⁴³⁾

냅 공동체에게 Full Gospel은 고등비평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성경적 복음을 의미하기도 했을 것이다. 박명수에 따르면, 냅이 함께했던 만국사도적성결연맹의 Full Gospel은 고등비평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성경의 순수한 복음을

39) Paul Hong, “A Letter to Dr. Don Dayton,” in 홍용표, “만국성결교회 창립자 마틴 냅이 사도 예언운동의 선구자였나?,” http://m.blog.daum.net/_blog/m/article_View.do?blogid=0buN0&articleno=432 (accessed February 3, 2016).

40) Knapp, *Pentecostal Letters, Selected from the Correspondence of M. W. Knapp*, “Dear Friend R.,” Part 5 GIFTS OF GOD.

41) David Bundy, “From Christendom to Pentecost: The ‘Pentecostal’ Ecclesiology of Martin Wells Knapp and the Radical Holiness Movements I,”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특강>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2015년 3월 13일).

42) Knapp, “Dear Friend R.”

43) 냅은 *Lightning Bolts From Pentecostal Skies*에서 그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말했다. Martin Wells Knapp, *Lightning Bolts From Pentecostal Skies: Or, Devices of The Devil Unmasked.*, (Cincinnati: Revivalist Office, 1898 / Full Salvation Quarterly Pentecostal Holiness Library, 1989); 마틴 냅, 『오순절칭천벽력』,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2015).

의미했다. 만국사도적성결연맹의 1902년 「헌법」 신조는 “합리주의는 고등비평이나 신신학이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 세계를 처절하게 파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영감으로 써졌고, 원래에는 오류가 없으며, 신앙과 생활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외적인 기준이라는 우리의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분명하게 주장한다.”라고 기록했다.⁴⁴⁾ 고등비평을 기반으로 삼는 신학은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하고 성경의 온전한 복음을 파괴한다. 박명수에 따르면, 그래서 뉘를 포함한 만국사도적성결연맹은 그런 신학에 물들지 않은 성경의 “순수한 복음”의 전파라는 새로운 강조점을 덧붙였다.⁴⁵⁾

III. 동양 성결운동과 純福音/순복음

1. 일본 성결운동과 純福音

44) “The Holy Scriptures. Rationalism is making awful havoc in the religious world, under the spacious names of ‘The Higher Criticism’ and ‘The New Theology.’ We therefore emphatically affirm our unwavering faith in the holy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as Divinely and supernaturally inspired, infallably true as originally given, and our only divinely authorized outward rule of faith and practice.” Seth C. Rees,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International Apostolic Holiness Union* (Chicago: General Superintendent, 1902; “1887–1921 The Pilgrim Holiness Church (Precedents),” <https://www.wesleyan.org/2649/church-disciplines> (accessed January 20, 2017), 4.

45) 박명수, “만국성결연맹, 동양선교회, 그리고 한국성결교회,” 성결신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sgti.kehc.org/data/person/mspark/3.hwp> (accessed February 7, 2016). 과함과 더함 등 초기 오순절지도자들도 고등비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창승, “초기 오순절지도자 과함과 더함의 두 가지 신학적 전선들,” 『영산신학저널』 Vol. 33 (2015): 71–98을 참조하라.

Full Gospel을 “純福音”이라고 최초로 번역한 사람은 일본인 성결운동가 나카다 주우지(中田重治)였다. 나카다 주우지는 1870년 11월 20일에 태어나 1939년 9월 24일에 별세했다. 그는 1905년 11월에 일본성결교의 기초인 東洋宣教會(とうようせんきょうかい, Oriental Missionary Society)를 설립하였으며,⁴⁶⁾ 그 교단을 기존 5대 교단(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 침례교, 루터교)에 필적하는 교단으로 발전시킨 공로자로 평가받는다. 유창한 설교와 대규모 전도 활동으로 인해 일본의 드와이트 무디라고 불리며 부흥사로 인정을 받았다.⁴⁷⁾ 본교의 서두에서 밝혔던 것처럼 홍용표는 나카다 주우지가 “純福音”(きよめ ふくいん)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나카다 주우지는 1905년에 “聖靈派のあだ名”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와 “全き福音”(ぜんき ふくいん)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⁴⁸⁾

46) Wikipedia 일본판은 동양선교회의 설립시기를 1905년 11월이라고 소개한다. “東洋宣教會,” 위키백과, <https://ja.wikipedia.org/wiki/%E6%9D%B1%E6%B4%8B%E5%AE%A3%E6%95%99%E4%BC%9A> (accessed March 10, 2017). Wikipedia 일본판은 주우지에 대한 소개에서 1901년에는 “中央福音伝道館と聖書学校の設立”했고, 1905년에 東洋宣教會를 설립했다고 기록한다. “中田重治 (なかだ じゅうじ),” 위키백과, <https://ja.wikipedia.org/wiki/%E4%B8%AD%E7%94%B0%E9%87%8D%E6%B2%BB> (accessed January 22, 2017). 그런데 “Oriental Mission Society,” http://protestantismenacademic.com/455/Oriental_Mission_Society, accessed January 11, 2017)는 동양선교회가 1901년에 설립되었다고 기록한다. 이 차이는 중앙복음전도관 설립을 동양선교회 설립과 혼돈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47) “中田重治 (なかだ じゅうじ),” 위키백과, <https://ja.wikipedia.org/wiki/%E4%B8%AD%E7%94%B0%E9%87%8D%E6%B2%BB> (accessed January 22, 2017).

48) “靈に満たされた者は、昔から色々のあだ名をつけられました。使徒時代においては「酔っぱらい」(使徒三・一三)、「天下を亂す者」(同一七・六)、「疫病」(同二四・五)、「氣ちがい」(同二六・二四)などと言われました。今でも病的だの、迷信だの、輕薄だの、感情的だの、無學だの、空騒ぎするなどと、色々の言葉をもって批評しております。しかしこれらが未信者より來たらずして、いわゆる信者より來たるとは實に奇怪であります。はなはだしきは、全き福音を信ずる信者は教會より出て行けよがしに仕向ける教會もあります。これは昔よりありがちのことで驚くほどのものでありませんが、今は聖徒が大いなる忍耐を要する時代であります。なんと云われようと、全き福音は早晚勝利を得ます。” 中田重治, “聖靈派のあだ名,” (一九〇五年 [明治三八年] 三月二五日), 『中田重治論說選集』 米田勇 編 (東京

그러나 주우지가 주로 사용한 용어는 純福音(じゅん ふくいん)이었다. 주우지는 1905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神田美土代町の 基督青年會館에서 열린 한 전도대회에서 설교했는데, 그 대회명이 “聖書の純福音宣伝大會”였다.⁴⁹⁾ 그런데 그는 1906년에 작성한 “불친절한 전도자”(不親切なる伝道者)라는 설교에서 “純福音”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구도자의 다수는, 옛날의 때와 구도의 정신에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위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도자의 다수는 아직도 안목이 뒤떨어져 있고, 주문을 벗어난 것만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한 소화불량물을 강단에서 태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나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모른다고 탄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전도자가 매 일요일에 내거는 설교 제목을 보고도 모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한 순복음선전자(純福音宣伝者)가 서야 할 때입니다.⁵⁰⁾

나카다 주우지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포함하는 Full Gospel을 “全き福

: 中田重治傳刊行會, 1975):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05.html, (accessed January 21, 2017).

49) “中田重治 (なかだ じゅうじ),” 위키백과.

50) “現今の求道者の多數は、昔の時とは求道の精神において大いに違っている。彼らは心底から慰安を求めている。しかるに伝道者の多數はいまなお目がさめず、注文外れのことばかり宣べている。自分もよく合点しない不消化物を平氣な顔で講壇から説いている。幾年も教會に通ったけれども、いまだに分からないと嘆いている人が多數である。かかるものは彼ら伝道者が毎日曜日かけるところの説教題を見てもわかる。いまは聖靈に滿たされた純福音宣伝者の立つべき時である。(二月三日).” 中田重治, “不親切なる伝道者,” (一九〇六年 [明治三九年] 二月三日),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06.html, (accessed January 22, 2017). 그는 1912년에도 “純福音の信者”라고 말하기도 했다. “キリスト教は昔より偶像に對してはきわめて猛烈な攻撃態度を取って來たものである。偶像にささげた物を食わしめる女イゼベル(默示錄二・二〇)を容認する教會は、みな腐敗した教會である。純福音の信者なる者は、偶像を拝するか殺されるかという場合には、喜んで殺されることを願うものである.” 中田重治, “偶像に遠ざかれ,” (一九一二年 [大正一年]),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12.html (accessed January 8, 2017).

音”이라고 번역했을 것이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기록만으로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목창균에 따르면, 동양선교회 조직 후, 당시 전도 담당 이사였던 주우지가 발표한 “동양선교회란 무엇인가?”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등의 주제가 담겨있었다.

본회의 목적은 일본을 비롯하여 동양 여러 나라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聖)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곧 주의 재림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중복음(四重福音)이라고 일컫는 구원, 성결, 주의 재림, 신유를 주장합니다.⁵¹⁾

주우지는 그보다 이른 동년 3월경에 쓴 “大胆なる伝道”라는 글에서도 “즉각적 회심,” “주의 재림,” “성결,” “신유”를 언급했었다.⁵²⁾ 그는 그 네 가지 주제에 성령침례의 주제를 더했다. 그는 “연기의 종교”(煙の宗教)라는 글에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를 본문(행 2:19)으로 “피와 불”에 대해 말했다. 그는 현대 그리스도 교회의 기적으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신생과 성령의 불에 의한 “성결의 바پ티스마”(聖潔のバプテスマ)를 제시했다. 주우지에게 오순절적 성령침례는 “성결의 침례”였다.⁵³⁾ 그런데 주우지에게 성령침례는

51) 목창균, “사중복음의 기원,” 성결신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sgti.kehc.org/data/person/mok/sungyul-theology/3.htm>, (accessed February 21, 2017)에서 재인용.

52) “主イエスの御名があがめられるため、即座の悔い改めはもちろんのこと、聖潔も、主の再臨も、神癒でさえも大胆に宣伝すべきであります。” 中田重治, “大胆なる伝道,” (一九〇五年 [明治三八年]), 『中田重治論説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 and-Namiki/3294/book35_1905.html (accessed January 21, 2017).

53) 주우지는 피와 불에 더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절(“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과 요한계시록 8장 4절(“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을 근거로 “연기의 바پ티스마”(煙のバプテスマ), 즉 기도의 집단의 바پ티스마를 더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中田重治, “煙の宗教.” 그는 1933년에 “聖潔派の特徴”이라는 글에서 일본 성결파의 특징을 사중복음보다는 목청껏 외치고 빌며(聲を限りに叫び祈る) “열심히 기도하는 것”(熱心に祈ること)이라고 규정했다. 中田重治, “聖潔派の特徴,” (一九三三年 [昭和八年]), 『中田重治論説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 and-Namiki/3294/>

성결의 침례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성령침례가 능력을 부여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문으로 삼은 “증인의 특색”(証人の特色)이라는 글에서 증인은 신자여야 하며, 성령을 받아야 하며, 사람을 설득하는 하나님의 능력(神の力)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바로 완전한 사랑(全き愛)이다.⁵⁴⁾ 유우지는 “이상적인 성결 전도자”(理想のホーリネス伝道者)라는 글에서 “칭의, 성화, 신유, 재림, 기도, 성경읽기, 불신자에게 전도” 등을 그 조건으로 들었다.⁵⁵⁾ 그에게 “全き福音”은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온전하게 갖는 것이었을 것이다.

유우지가 Full Gospel의 번역어로서 “全き福音”보다는 “純福音”을 선호한 이유는 추정만 가능하다. 유우지는 “純”이라는 단어를 “純教會”라는 글에서도 사용하며,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인용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리스도와 함께 백성을 호령할 “순수 교회” 또는 “이상적인 교회”(理想とする教會)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엡 5:27]라고 정의했다.⁵⁶⁾ 이 정의에 근거하여 추정해 본다면, 유우지에게

book35_1933.html (accessed February 21, 2016).

54) 中田重治, “証人の特色,” (一九一四年 [大正三年] 一月十九日),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14.html (accessed February 21, 2017).

55) 中田重治, “理想のホーリネス伝道者,” (一九二二年 [大正十一年] 五月四日),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22.html (accessed February 21, 2017).

56) “世には教会と名のついた色々の団体がある。儀式一方のお寺風の教會、忠君愛國一点ばりの國家的教會、社會改良風俗矯正専門の世俗的教會、何でもよしというクラブの教會、その他不消化物卸し賣りの教會、または神學界のくず物賣りのものもあり、寄席風のものもあり、いずれも五人ないし百人の聴衆相手に何かやっている。彼らはキリストのからだなる眞教會であるかと思うならば失望するけれども、その中にははまれている男の子、すなわち生まれてのち宝座のもとに上げられ、またキリストと共に鐵の杖をもて萬國の民をつかさどらんとする純教會(默示錄一・二章)を思えば、喜んで彼らの中にも証し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われらの理想とする教會は、キリストを中心とせる「しみなくしわなく、すべてかくのごときたぐいなく、聖にして傷なき榮えなる教會」である。” 中田重治, “純教會,” (一九〇六年 [明治三十九年] 二月一〇日),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14.html

온전하여 흠 없는 “순수 교회”(純教會)가 전하는 복음은 온전하여 흠 없는 “순수 복음”(純福音)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유우지가 Full Gospel을 번역할 때,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pure gospel)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다. 예를 들면 일본하나님의교회(神の教會)를 설립한 야시마 우키찌(矢島宇吉)는 1910년에 『순복음일반』(純福音一斑)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에 따르면, 그 책은 그가 『純福音』이라는 계간지에 매월 1회 개재했던 것을 모은 것이었다. 그의 『純福音一斑』의 마지막 쪽에는 계간지 『純福音』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 설명에 따르면 『純福音』의 영문 표기는 “The Pure Gospel”이었다.⁵⁷⁾ 일본의 계간지 『純福音』이 영문 표기를 “pure gospel”로 내걸었던 당시 미국에서도 “pure gospel”이 언급되었다. 왈드란(E. S. B. Waldran)은 1910년 8월에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의 계간지 『기독교 말씀과 사역』(*The Christian Word and Work*)에 “순수한 복음”(The Pure Gospel)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그 글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것(갈 1:6-8)에 기초하여 “변질된 복음”(a perverted gospel)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하나의 진정한, 순수한 복음”(one true, pure gospel of Christ)을 언급했다.⁵⁸⁾

유우지가 Full Gospel을 고등비평에 의해 변질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06.html (accessed February 21, 2017).

57) 矢島宇吉, 『純福音一斑』(東京: 警醒社, 1910): <http://kindai.ndl.go.jp/info:ndljp/pid/824557/3> (accessed February 28, 2017). 야시마 우키찌는 純福音을 완전한 복음으로도 이해했다. 그는 『純福音一斑』의 서문에서 그가 “純福音”을 설명하려는 목적을 밝혔다.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完全(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책의 첫 장은 “진정한 종교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옛 종교개혁이 불완전한 것이어서 많은 교파의 형성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판단하고 “완전한(完全) 종교개혁의 출현”을 기대했다. “성결의 교의,” “신유,” “그리스도의 재림” 등의 주제들이 담겼다.

58) E. S. B. Waldran, “The Pure Gospel,” *The Christian Word and Work* (August, 1910): 2: http://therestorationmovement.com/_journals/ww/1910/1910-40-WW.pdf (accessed February 20, 2017).

“純福音”이라고 번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가능성은 그가 념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본래 고등비평을 거부했었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홍용표는 1996년에 풀러 신학교에 제출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성결교회(KHC)는 미국 만국사도성결교회(IAHC)의 주도하에 동양선교회(OMS)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한국성결교회는 “그 헌법, 신학, 문화, 정치 형태, 그리고 선교 방법들을 만국사도성결교회로부터 전수받았다.”라고 주장했다.⁵⁹⁾ 또한 그는 2014년 10월 20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사중복음연구소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도날드 데이튼이 발표한 글에 대한 간평에서 “일본성결교회 부흥사 나까다 유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및 지도자 에드윈 킬보른과 존 토마스뿐 아니라 성결교회 부흥사 이성봉이 념의 순복음(Full Gospel)과 맥을 같이한다.”라고 썼다.⁶⁰⁾ 홍용표의 주장에 따라 념과 유우지를 이어보면, 념이 헌법에서 고등비평을 거부한 것과 유우지의 “純福音”이 겹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념이 창설한 만국사도적성결연맹의 1902년 『헌법』 신조는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을 거부했었다. 념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유우지는 Full Gospel을 “全き福音”보다는 고등비평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의미하는 “純福音”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념의 영향 이외에도 유우지가 원래 고등비평을 거부했고, 고등비평에 물들지 않은 순복음을 선호했다는 사실을 그의 생애와 그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유우지는 1888년에 東京英和學(校青山學院) 신학부에 입학했다. 그 입학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학교가 高等批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⁶¹⁾ 이 점은 그가 후에 Full Gospel을 주로

59) Paul Yongpyo Hong, “Spreading the Holiness Fire: A History of the OMS Korea Holiness Church, 1904–1957” (Ph.D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6), ii.

60) 홍용표, “단 데이튼 박사, ‘앨벗 심슨의 사중복음의 복음주의 역사학적 이해’ 논평,” <http://m.blog.daum.net/hongpyp/602> (accessed February 23, 2017).

61) “中田重治(なかだ じゅうじ),” 위키백과사전.” 그런데 하라다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유우지가 졸업시험을 치루고 퇴학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로서 그 학교가 너무 리버럴한 신학을 가르치고 따라서 시험 내용이 너무 리버럴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原田彰

純福音이라고 번역하게 된 주된 이유이기도 했을 것이다.⁶²⁾ 또한 주우지는 1933년에 작성한 “예언자의 확신”(預言者の確言)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고등비평과 순복음을 병렬시켰다. 그는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가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⁶³⁾ 그리고 이어서 그는 “성결파는 純福音을 믿는다.”라고 말했다.⁶⁴⁾ 이런 병렬은 대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병렬은 고등비평가들과 성결파의 대비, 그리고 고등비평에 의해 손상되어 인간의 말로 격하된 것과 고등비평을 가하지 않아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긴 그대로의 순수한 복음, 순복음의 대비였다. 그래서 주우지는 Full Gospel을 純福音으로 번역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은 일본인 오순절 교회신학자 마사카주 수주키(鈴木正和)의 언급과 거의 일치한다. 그는 “‘Full Gospel’이

久, “中田重治とメソジスト,” 『ウェスレーメソジスト研究』第2号 (2001): 24; <http://wesley-methodism.com/pdf/gakkai2001/gakkai2001c.pdf> (accessed April 16, 2017). 그러나 그 학교가 고등비평을 가르치지 않았든, 가르쳤든, 주우지가 고등비평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62) 1906년 초에 주우지는 “영적인 비상한 불안을 느꼈다”(靈的に非常な不安を覺えた). 그래서 선지 그는 2월 3일에 純福音이라는 용어가 담긴 설교를 하고는 2월 말부터 1907년 6월까지 중국, 영국, 미국 등을 여행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1907년 10월 17일에 純福音信徒大懇親會를 개최했다. “中田重治 (なかだ じゅうじ),” 위키백과.

63) “聖書の高等批評家は、聖書の神のことはなることを信じない。さればむろん預言を信じない。彼らには時の徴しも見えないから、それを解釋する聖書を見てわかるはずがない。” 中田重治, “預言者の確言,” (一九三三年 [昭和八年]),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33.html (accessed April 11, 2017).

64) “また聖潔派といわれる純福音を信ずる人々でも.” 中田重治, “預言者の確言.” 주우지가 이끌었던 일본성결회는 1924년 동양선교회성서학원에서 성서대회를 개최하고 고등비평에 반대하여 성서적 신앙을 주장했다. 『聖書信仰の叫び (聖書大會講演集)』 東洋宣教會出版部. 그리고 1933년에는 일본 성결회, 나사렛회, 자유감리회가 연합하여 고등비평을 거부하고 성서적 신앙을 확대시키기 위해 “성서신앙연맹”(聖書信仰連盟)을 결성하였고, 주우지가 그 초대 이사장이 되었다. 米田勇, 『中田重治傳』 (東京: 中田重治傳刊行會, 1959), 451-55; cf. “聖書信仰,” 위키백과, <https://ja.wikipedia.org/wiki/%E8%81%96%E6%9B%B8%E4%BF%A1%E4%BB%B0> (accessed February 15, 2017).

란 용어는 일본 기독교 안에서 오랜 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1890년대부터 감리교/성결운동 영향 아래 있던 교회들은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Full Gospel을 純福音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⁶⁵⁾

쥬우지에게 “純福音”은 성경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는 “제교회의 약점”(諸教會の弱点)이라는 글에서 “제교회가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순복음(純福音)을 전해야 할 것 아닌가. 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는 “옛날 그대로의 성서적 그리스도교”(昔ながらの聖書的キリスト教)를 정면에서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⁶⁶⁾ 그에게 순복음은 성경을 바탕으로 삼은 옛날 그대로의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복음이었다.

쥬우지에게 全き福音과 純福音은 동일한 복음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는 全き福音과 純福音을 “성령으로 충만한”(聖靈に満たされた)이란 어구와 관련시켰다. 그에게 순복음선전자(純福音宣伝者)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전적인 복음을 믿는 신자(全き福音を信ずる信者)”이다. 그는 “전도 부진의 원인”에 대해 말하면서 그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신자 각자의 마음속에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원인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⁶⁷⁾ 쥬우지는 “온전한 복음” 혹

65) “The word ‘Full Gospel’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in the Christian churches in Japan. From 1890’s on, against the liberalism the churches under the influence of Methodist/Holiness started to use Full Gospel 純福音.”鈴木正和(Masakazu Suzuki)가 필자에게 보낸 개인적인 e-mail 중에서 (jesusgate@daum.net, March 31, 2017). 아키오 도히는 일본의 개신교를 부흥적 복음주의(福音主義), 자유주의(新神學), 순복음주의(純福音)로 대별했다.土肥昭夫,『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史』(東京:新教出版社, 1980), 17-25頁.

66) “諸教會が聖書を土台としておるなれば、純福音を説くべきはずではないか.”中田重治, “諸教會の弱点,”(一九一八年[大正七年]一〇月三日),『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18.html (accessed February 21, 2017).

67) 中田重治, “伝道不振の原因,”(一九一三年[大正二年]),『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13.html (accessed February

은 “순전/순수한 복음”을 하나의 복음이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일으키는 복음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2. 한국 성결운동과 순복음

정빈은 일본으로 유학하여 성결주의를 배우고 한국에 돌아와 순복음/사중복음을 전했다. 미국인 일본 선교사 길보른(Ernest A. Kilbourne)은 1907년에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에게 문을 여셔서 성경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섯 명의 총명한 청년들을 보내주셨다고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그들 가운데 두명은 “순복음”(Full Gospel)을 자신들의 동족에게 전하려는 분명한 결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일본어로 순복음을 배우면서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이때 그들은 한자어 純福音을 국문 “순복음”으로 번역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성결책자 3권을 번역하여 출판하였고,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은 이 전도지를 가지고 한국에서 전도했다.⁶⁸⁾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김상준과 정빈으로 하여금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순복음전도관(Full Gospel Mission)을 열기 원하신다.’라고 느꼈다.⁶⁹⁾ 한국성결교회는 교단으로 형성되기 전 4년간(1907-1921)을 “복음전도관”(Gospel Mission Hall/Station)으로 불렸다. 이 시기에 활동한 전도자들 가운데 정빈이 있었다.⁷⁰⁾ 정빈은 다음과 같이 중생, 성결,

21, 2017).

68) E. A. 길보른(Ernest A. Kilbourne), “Korea,” *Electric Message* (February, 1907); 박명수, “동양선교회의 한국선교 준비(1904-1907),” 『초기한국성결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20에서 재인용.

69) E. A. 길보른(Ernest A. Kilbourne), “Korea and The Full Gospel,” *Electric Message* (February, 1907); “한국과 순복음,” 『성결교회와 신학』 Vol. 33 (2015): 169-79. 길보른은 이 글에서 “곧 한국 전역에 순복음 곧, 중생, 성결, 신유, 그리고 우리 주의 재림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가 전했던 Full Gospel의 사중성을 드러냈다.

70) Cf. 성결대학교 성결교회역사연구소 편, 『한국성결교회 100년사』 (서울: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출판부, 2007), 115, 875-81; 이명직, 『조선야소교 동양성교회성결교회략사』 (경성:

신유, 재림을 전했다.

또한 이곳에서 믿는 목적에 제일 특별한 조목은 네 가지이니, 제일은 구원이요, 제이는 성결이요, 제삼은 신유(약 아니 쓰고 기도만 하여 나음을 받는다 고 함)요, 제사는 재림이라는 것이 다른 교회보다 다를 수 있소. 예수를 자기 주로 아는 자면 이 몇 가지는 벌써 그 흥중에 예상한 것인 즉 실상은 들은 것이 없습니다.⁷¹⁾

이장하가 “Full Gospel”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순복음”을 사용했다는 것은 기록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홍용표는 만국성결교회에서 1905년 세운 한국성결교회 첫 통역 이장하가 나카다 주우지가 Full Gospel을 한자 純福音으로 번역했던 것을 일본에서 한글로 “순복음”으로 번역했다고 주장했다.⁷²⁾ 그러나 이것은 기록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가 Full Gospel을 사용했던 것은 확인된다. 동양선교회 선교사들의 통역을 담당하던 이장하는 1908년 여름에 쓴 글에서 “나는 지금 우리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내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은 이 순복음(Full Gospel)을 여기 있는 나의 모든 형제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⁷³⁾ 그 글은 영어로 기록된 것이어서 그는 국문 “순복음”이 아닌 영문 Full Gospel을 썼다. 물론 이장하가 집회에서 Full Gospel을 한국말로 “순복음”이라고 말했다는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동양선교회이사회, 1929), 51–52.

71) 정빈, “성서학원의 형편,” <그리스도 신문> (1906년 5월 10일); 정삼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서울: 은성, 1995), 39–40; 박명수, “동양선교회의 한국선교 준비(1904–1907),” 223 (205–227)에서 재인용.

72) 홍용표, “‘순복음’ Full-gospel이란 말을 누가 조어했고 누가 번역했나?”

73) 이장하, “Sanctified Korean,” *Electric Message* (July/August, 1908): 12; “성결해진 한국인,” 『성결교회와 신학』 Vol. 3 (1999): 248. “동양선교회(聖潔敎) 한국선교,” <평양대부흥>, <http://www.1907reviv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 (accessed March 12, 2017) 참고.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문 “순복음”이라는 용어의 한국에서 사용 시기는 1923년부터이다. 성결주의 계간지 『活泉』은 1923에 “純福音(순복음)을 傳(전)하는 자가 되어라”는 글을 개제했다. 그 글은 “비더월프”(W. E. Biederwolf)가 설교한 글을 번역한 것이었으며, 純福音이라는 제목의 한자에 국문으로 “순복음”이라는 음을 달았다.⁷⁴⁾ 비더월프는 복음을 신화로 만들지 말고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명확한 경험을 가지고 순복음을 전하라고 권고했다. 비더월프가 복음을 신화로 만들지 말라고 쓴 것은 뉘과 주우지의 맥락에서 Full Gospel을 고등비평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 “순복음”으로 이해했음을 드러낸다. 또한 번역자들이 비더월프가 사용했을 Full Gospel을 “全福音”이 아닌 “純福音(순복음)”으로 번역한 것은 주우지의 번역을 따르는 것이었으며, 그럼으로써 조선성결교회도 또한 Full Gospel을 무엇보다도 고등비평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복음으로 이해했음을 드러낸다.

이건은 1928년에 純福音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고 성취하신 복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사중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그에게 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선전(宣傳)하신 것과 그리스도가 성취해 놓으신 것을 전하는 것이다.⁷⁵⁾ 즉, 이건은 순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 삶과 죽으심의 결과물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그에게 순복음은 사중적이었다. 그가 말하는 순복음은 “赦罪, 聖潔, 神癒”, 그리고 “再臨(千年期前再臨)”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는 영혼 구원의 길이다. 속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런 속죄는 기독교의 “전유적 교의”(專有的 教義)이다. 성결도 또한 믿음으로 받으며, 성신충만이라고도 일컬

74) W. E. 비더월프(W. E. Biederwolf), “純福音을 傳하는 자가 되어라,” 『活泉』 Vol. 13 (1923): 3-5.

75) 이진, “純福音이란 무엇이뇨,” 『活泉』 Vol. 63 (1928): 27.

어진다.⁷⁶⁾

이건은 순복음을 공허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재에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는 순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믿음으로 성결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순복음을 믿음에는 반드시 구체적 결과가 따른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건은 그런 순복음의 성격을 “實驗的”이란 말로 표현했다. 순복음으로부터 구체적 결과를 얻어내는 신앙은 “실험적 신앙”(實驗的 信仰)이다.⁷⁷⁾ 그에게 “실험적”이란 “가능성을 타진하는”이 아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을 의미했다. 순복음적 신앙은 속죄, 성결, 신유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확실히 가지는 실험적 신앙이다. 그는 순복음적 신앙을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해주신 것을 현재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이라고 본 것이다.

이건에게 고등비평은 순복음의 적이다. 그는 이단에 “고등비평(高等批評), 신신학(新神學), 지상천국설(地上天國說), 기독교사회주의설(基督教社會主義說)”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는 그런 것들을 순복음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공격했다. 이건은 순복음적 신앙에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부활”, “승천”, “재림”을 포함시켰는데, 그런 주제들은 고등비평을 기반으로 하는 신신학을 거부하는 근본주의가 주장하는 것들이다. 그에게 순복음은 근본주의적이며, 그래서 순복음과 고등비평의 관계는 양립할 수 없게 적대적이다.⁷⁸⁾

1929년에 이명직은 경성성서학원을 “진격적(進擊的)으로 이단(異端)과 속화(俗化)와 죄악을 대적하여 분투(奮鬪)하자는 주의하(主義下)에서 남녀 전도자를 양성하여 순복음(純福音)을 동양 전대에 전파하여 령혼을 구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동양선교회 교역자 양성(敎役者養成)의 기관”이라고 규정했다.⁷⁹⁾ 복

76) Ibid., 28.

77) Ibid..

78) 이진, “本誌의 使命에 對하여,” 『활천』 Vol. 100 (1931): 14..

79) 이명직,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약사』.

음전도관이 1925년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東洋宣教會 聖潔教會)로 교단화 되었을 때 순복음은 사증복음으로 천명되었다. 그러한 전통은 1933년과 36년 헌법에도 지속되었다. 성결교회의 敎理及 條例(1925)와 헌법(1933, 1936)에서 그 교회의 사명은 순복음(the Full Gospel) 곧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국내외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천명되었고, 순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성경적 성결과 세계복음화에 불가결하다.”라고 주장되었다.⁸⁰⁾

김기삼은 純福音을 원시적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 전적인 복음으로 이해했다. 그는 1937년에 두 번에 걸쳐 “純福音主義信仰의 本質”이라는 글을 썼다. 첫 글에서 그는 “純福音”이란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며 그의 글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福音이면 복음이지 純자를 붙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복음 자체가 순수한 것인데 그 복음에 형용사를 덧붙인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純福音”이란 말은 복음이 俗化되어 “不純한 福音”이 된 것에 대한 반작용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그에게 純福音은 새로운 것이 아닌 “원시적 기독교의 본질”이었다. 그는 純福音을 초대교회 복음의 전체로도 이해했다. 그에게 순복음은 “초대의 福音全部를 우리의 생활 全幅에 그대로 받아드려 우리의 생활이 순수복음화하자는대서 생긴 숙어”였다.⁸¹⁾

80) 吉寶崙, 『東洋宣教會 聖潔教會 敎理及 條例』(京城: 東洋宣教會本部, 1925); 경성동양선교회 편, 『(성결교회 동양선교회) 교리규조례 : 부례문』(경성: 경성동양선교회, 1925); 기독교성결교회 역사편찬위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헌법 : 1925~1941 광복이전 한글독음 영인본』(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2015); 동양선교회성결교회출판부 편,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임시약법』(경성: 동양선교회성결교회출판부, 1933); 조종남, “한국 성결교회의 신학적 배경과 기원,” 성결연구소 홈페이지, <http://sgti.kehc.org/data/person/cho/02.htm> (accessed February 11, 2017); “본 교회는 주 강생 1901년 미국인 카우만과 E. A. 길보른 양인이 하나님의 크신 사명 하에 동양 여러 나라에 그리스도의 순복음을 전하고자 함에 기원.” 박문수, “어니스트 길보른(Ernest A. Kilbourne)의 생애와 선교사역 ⑩,” <기독일보>,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 (accessed February 12, 2017).

81) 김기삼, “純福音主義信仰의 本質 (I),” 『活泉』 Vol. 174 (1937): 14-16. 1947년에 K生이라

김기삼은 1937년 두 번째 글에서 순복음 신앙과 자유주의 신앙 그리고 진보적 복음주의와 대비시켰다. 그는 자유주의 신앙을 인간의 죄악성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순복음 신앙은 그와는 반대로 인간의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며 죄악으로부터 인간의 구원을 추구한다고 말했다.⁸²⁾ 그는 또한 순복음과 복음주의를 비교했다. 그는 복음주의를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보수적 복음주의”와 18세기부터 합리주의에 물들어 고등비평을 받아들이는 “진보적 복음주의”로 분류하고,⁸³⁾ 순복음은 보수적 복음주의와 함께 한다고 주장했다.⁸⁴⁾ 후에 성결 역사신학자 박명수는 “19세기의 복음주의는 이 네 가지가 신약의 내용을 보다 온전히 나타낸다고 하여 이를 온전한 복음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일본과 한국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여 순복음이라고 번역되었다.”라고 말했다.⁸⁵⁾ 그의 언급은 이명직이 경성성서학원의 “교과서(教科書)는 오직 신약과 구약으로 하여 금일과 같지 소위 신신학(新神學)이니 고등비평(高等批評)이니 하는 사단의 오묘(奧妙)하고 하나님의 묵시하신 말씀 됨을 부인(否認)하고저”한다는 말과 상통하며,⁸⁶⁾ 김기삼의 언급과도 상통한다. 그런데 자유주의만 경계한 이명직이나 박명수보다 자유주의와 더불어 진보적 복음주의도 함께 거부한 김기삼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했다. 김기삼의 이러한 순복음에 대한 반 고등비평적 규정은, 감각적이었지만, 뉘과 쥘루지와 비더울프의 반고등비평적 순복음의 계통을 정확하게 따

는 필명으로 “純福音”이라는 글씨는 예루살렘에서 발원된 생수가 시간이 흐르며 탁류가 되었으나, 종교개혁으로 걸러졌고, 20세기에 이르도록 다시 오염되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純福音의 지류들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K生, “純福音,” 『活泉』 Vol. 232 (1947): i.

82) 김기삼, “純福音主義信仰의 本質 (2),” 『活泉』 Vol. 175 (1937): 11-12.

83) “진보적 복음주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정통주의와 유사한 “신복음주의”일 것이다. Cf. 이창승, “오순절 성경 해석의 역사와 평가,” 『영산신학저널』 Vol. 36 (2016): 279-82.

84) 김기삼, “純福音主義信仰의 本質 (2),” 13-14.

85) 박명수, “동양선교회의 한국선교 준비(1904-1907),” 223.

86) 이명직,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약사』.

랐던 것이다.

김기삼은 또한 1939년에 두 번에 걸쳐 “初代教會의 純福音의 信仰特徵과 그 弊害”라는 글을 썼다. 그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純福音의 信仰”으로 규정하고 당시의 순복음적 신앙의 특징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순복음적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聖神의 活躍”이었다.⁸⁷⁾ 사도들과 평신도들까지 전적으로 성신에 의한 활약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이적을 행하고 방언(邦言)을 말했다. 성신은 능력의 신이었고,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지혜의 신이었다. 그에게 “성신은 순복음신앙의 원동력”이었다.⁸⁸⁾ 그리고 그 두 번째 특징은 재림의 신앙이었다.⁸⁹⁾

이명직은 방언을 순복음의 한 주제인 성령세례의 증거라는 것을 거부했다. 이명직은 “성신의 세례는 거듭난 사람에게 임하여 내주(內住)의 죄를 막히며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권능을 베푸시는 성신의 역사를 가리킴이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성신 세례의 결과를 지식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과 동일시했다. 그는 방언의 은사를 “어학의 은사”라고 규정했다.⁹⁰⁾ 그는 방언을 “각국의 국어”와 “천사의 말”로 나누고 각국의 언어는 배우거나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수 있으며, 천사의 말은 성신의 권능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각국의 언어를 말하는 이적 방언은 각국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그런 방언이 필요하지 않아 현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한 그는 현대에 나타날 수 있는 천사의 방언에도 관심도 없으며, 필요하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명직은 당시 미국과 중국의 방언파가 성신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증

87) 김기삼, “初代教會의 純福音子의 信仰特徵과 그 弊害 (1),” 『活泉』 Vol. 196 (1939): 19-22; “初代教會의 純福音子의 信仰特徵과 그 弊害 (2),” 『活泉』 Vol. 197 (1939): 19-20.

88) 김기삼, “初代教會의 純福音子의 信仰特徵과 그 弊害 (1),” 21.

89) Ibid., 21-22.

90) 이명직, “제5 성신의 세례,” 『活泉』 Vol. 718 (2013): 57.

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 온당치 못한 것, 거짓되고 미혹하는 것이라고 폄하했다.⁹¹⁾

I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성결적 “순복음”(Full Gospel, 純福音)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적이고 의미적으로 고찰하였다. “Full Gospel”이란 용어는 1839년에 미국 성결운동가 찰스 피니가 맨 처음으로 문서화한 것이며, 뒤이어 아사 마한이 1858년 이전에, 그리고 1890년에 알버트 심슨이 그 용어를 문서화했다. “純福音”이란 용어는 일본인 성결운동가 나카다 쥬우지(中田重治)가 설교에서는 1906년에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순복음”은 이장하 등 한국의 초기 성결운동가들에 의해 1908년 전후에 한자어 “純福音”에서 한글로 통/번역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1923년경부터 문서화되었다.

성결운동가들에게 Full Gospel(純福音, 순복음)은 과거에 교회사 속에서 구분화되고 경시되기도 했던, 현재에 고등비평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적이고, 성령적이며 사도적인 복음의 전체가 회복된 온전한 복음으로서 “중생, 온전한 성화, 신유, 재림” 등등 다중적 측면들을 갖는다. 그리고 성결적 순복음은 “온전한 성화”와 “성령세례”를 동일한 범주로 간주했으며, 성령세례에는 또한 능력이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피니와 마한에게 Full Gospel은 칭의와 성화를 포함했다. 보드만의 Full Gospel이 피니와 마한의 Full Gospel과 다른 점은 신유가 포함된 것이다. 심슨은 그 이전 피니와 마한, 그리고 보드만이 제시했던 Full Gospel을 보다 조직적으로 정립했으며, 중생, 성화, 신유라는 주제에 재림을 더해 사증화시켰다. 넓에게 Full Gospel은 고등비평에 파괴되지

91) 이명직, “聖神(성신)을 밋으면 方言(방언)을 하나뇨,” 『活泉』 Vol. 97 (1930): 2-3.

많은 순수한 복음이기도 했다. 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주우지, 정빈, 이장하, 이진, 김기삼 등 일본과 한국의 성결운동가들은 Full Gospel을 무엇보다도 고등비평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으로 이해하고, “全き福音”보다는 “純福音”이라고 번역하고, 의미를 부여했다.

성결적 순복음 Holiness Full Gospel	피니, 마한	구원자 Savior	(온전)성화자 Sanctifier (성령침례=성결+능력)		
	보드만	구원자 Savior	(온전)성화자 Sanctifier (성령침례)	치료자 Healer	
	심슨	구원자 Savior	(온전)성화자 Sanctifier (성령침례)	치료자 Healer	다시 오실 왕 Coming King

참 고 문 헌

- 경성동양선교회 편. 『(성결교회 동양선교회) 교리급조례: 부례문』. 경성: 경성동양선교회, 1925.
- 기독교성결교회 역사편찬위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1925-1941 광복이전 한글독음 영인본』.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2015.
- 吉寶崙(Kilbourne, Ernest A.). 『東洋宣教會 聖潔教會 教理及 條例』. 京城: 東洋宣教會本部, 1925.
- 김기삼. “純福音主義信仰의 本質 (1).” 『活泉』 Vol. 174 (1937): 14-16.
- . “純福音主義信仰의 本質 (2).” 『活泉』 Vol. 175 (1937): 11-16.
- . “初代教會의 純福音子의 信仰特徵과 그 弊害 (1).” 『活泉』 Vol. 196 (1939): 19-22.
- . “初代教會의 純福音子의 信仰特徵과 그 弊害 (2).” 『活泉』 Vol. 197 (1939): 19-22.
- 동양선교회성결교회출판부 편.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임시약법』. 경성: 동양선교회성결교회출판부, 1933.
- 박명수. 『초기한국성결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성결대학교 성결교회역사연구소 편. 『한국성결교회 100년사』. 서울: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출판부, 2007.
- 양재철. 『한국오순절교회의 신앙과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늘목장, 2005.
- 이 건. “純福音이란 무엇이뇨.” 『活泉』 Vol. 63 (1928): 27-28.
- . “本誌의 使命에 對하여.” 『활천』 Vol. 100 (1931): 14.
- 이명직. 『조선야소교 동양성교회성결교회략사』. 경성: 동양선교회이사회, 1929.
- . “聖神(성신)을 맞으면 方言(방언)을 하나뇨.” 『活泉』 Vol. 97 (1930): 2-3.
- . “제5 성신의 세례.” 『活泉』 Vol. 718 (2013): 56-58.
- 이장하. “성결해진 한국인.” 『성결교회와 신학』 Vol. 3 (1999): 246-49.
- 이창승. “초기 오순절지도자 파함과 더함의 두 가지 신학적 전선들.” 『영산신학저널』 Vol. 33 (2015): 71-98.
- . “오순절 성경 해석의 역사와 평가.” 『영산신학저널』 Vol. 36 (2016): 261-99.
- 정상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서울: 은성, 1995.
- 정진경. “순복음(純福音)이란 무엇인가?.” 『活泉』 Vol. 32 (1962): 40-45.
- 마틴 뎀. 『오순절 성경신학』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2013.

- E. A. 길보른 (Kilbourne, Ernest A). "Korea." *Electric Message* (1907); 박명수. "동양 선교회의 한국선교 준비(1904-1907)." 『초기한국성결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05-27.
- . "Korea and The Full Gospel." *Electric Message* (1907); "한국과 순복음." 『성결교회와 신학』 Vol. 33 (2015): 169-79.
- W. E. 비더윌프(Biederwolf, William E.). "純福音을 傳하는 자가 되어라." 『活泉』. Vol. 13 (1923): 3-5.
- Boardman, William E. *The Higher Christian Life*. Boston: Henry Hoyt, 1858: <https://archive.org/details/higherchristianlife00boarrich>. Accessed February 5, 2017.
- . *The Lord that Healeth Thee (Jehovah-Rophi)*. London: Morgan and Scott, 1881.
- Finney, Charles G. "The Rest of Faith." No. 1. Professor Finney's Lectures. Lecture XVI. *The Oberlin Evangelist* (September 11, 1839): *The GOSPEL TRUTH*. http://www.gospeltruth.net/1839OE/390911_rest_of_faith_1.htm. Accessed January 11, 2017.
- . "Sermon by Professor Finney: Preached at the Ordination of Fourteen Yong Men, Aug. 22, 1842." *The Oberlin Evangelist* (September 28, 1842): *The GOSPEL TRUTH*. <http://www.gospeltruth.net/oe/oe42/oepl56.htm>. Accessed February 2, 2017.
- International Apostolic Holiness Union.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International Apostolic Holiness Union*. Cincinnati: The Revivalist Office, 1900.
- Hartzfeld, David F. and Charles Nienkirchen, eds. *The Birth of A Vision: Essays on the Ministry and Thought of Albert B. Simpson, Founder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Beaverlodge, Alberta: Buena Books, 1986.
- Hong, Paul Yongpyo. "Spreading the Holiness Fire: A History of the OMS Korea Holiness Church, 1904-1957. Ph.D.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6.
- . "Full Gospel Camp-Meetings. *God's Revivalist and the Bible Advocate*, Vol. 13, No. 27 (1901): 10.
- Knapp, Martin Wells. *Pentecostal Letters, Selected from the Correspondence of M. W. Knapp*. Cincinnati: Office of God's Revivalist, 1902.
- . *Lightning Bolts from Pentecostal Skies: Or, Devices of The Devil Unmasked*. Cincinnati: Office of God's Revivalist, 1898 / Full Salvation Quarterly

- Pentecostal Holiness Library, 1989.
- _____. “Full Gospel Camp—Meetings.” *God’s Revivalist and the Bible Advocate*, Vol. 13, No. 27 (1901): 10.
- Lee, Sang Yun. “Contextual Hope in Korean Pentecostalism’s Threefold Blessing. Ph.D. diss. University of Birmingham, 2013.
- Mahan, Asa. *Out of Darkness into Light, or, The Hidden Life Made Manifest through Facts of Observation and Experience: Facts Elucidated by the Word of God*. London: Wesleyan Methodist Book Room, 1894: <https://archive.org/details/outofdarknessint00maha>. Accessed February 7, 2017.
- _____. *Autobiography: Intellectual, Moral, and Spiritual*. London: T. Woolmer, 1882: <https://archive.org/stream/autobiographyint00maha#page/318/mode/2up/search/in+Christ+a+full+and+rich>. Accessed February 10, 2017.
- Rees, Seth C.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International Apostolic Holiness Union*. Chicago: General Superintendent, 1902: <https://www.wesleyan.org/2649/church—disciplines>. Accessed January 20, 2017.
- Simpson, Albert B. *The Cross of Christ*. New York, New York: Christian Alliance Publishing Company, 1910.
- _____. *Service for the King*. New York: Christian Alliance Publishing Company, 1900: <https://www.cmalliance.org/resources/archives/downloads/simpson/service—for—the—king.pdf>. Accessed February 18, 2017.
- _____. *The Holy Spirit: Or, Power from on High, an Unfolding of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New York: Christian Alliance Publications, 1895: https://archive.org/stream/holyspiritpowe00simp_0#page/322/mode/2up/search/wi+th+the+light+of+the+Gospel+of+full. Accessed February 26, 2017.
- _____. *Four—fold Gospel*. New York: Word, Work & World Publishing Company, 1888: <https://archive.org/stream/fourfoldgospel00simp#page/132/mode/2up/search/full+salvation>. Accessed February 15, 2017.
- _____. *A Larger Christian Life*. New York: Christian Alliance publishing Company, 1890: <https://www.cmalliance.org/resources/archives/downloads/simpson/larger-christian—life.pdf>. Accessed February 27, 2017.
- _____. *Gospel of Healing*. New York: Christian Alliance Publishing Company, 1890: <https://www.cmalliance.org/resources/archives/downloads/simpson/the->

- gospel-of-healing.pdf. Accessed February 20, 2017.
- Waldron, E. S. B. "The Pure Gospel." *The Christian Word and Work* (1910): 2: http://www.therestorationmovement.com/_journals/ww/1910/1910-40-WW.pdf. Accessed February 20, 2017.
- 米田勇. 『中田重治傳』. 東京: 中田重治傳刊行會, 1959.
- 原田彰久. "中田重治とメソジスト." 『ウェスレーメソジスト研究』第2号 (2001): 23-36: <http://wesley-methodism.com/pdf/gakkai2001/gakkai2001c.pdf>. Accessed April 16, 2017.
- 矢島宇吉. 『純福音一斑』. 東京: 警醒社, 1910: <http://kindai.ndl.go.jp/info:ndljp/pid/824557/3>. Accessed February 28, 2017.
- 中田重治. 『中田重治論說選集』. 米田勇 編. 東京: 中田重治傳刊行會, 1975.
- 中田重治. "大胆なる伝道." 一九〇五年 (明治三八年)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05.html. Accessed January 21, 2017.
- . "聖靈派のあだ名." 一九〇五年 (明治三八年) 三月二五日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05. Accessed January 21, 2017.
- . "純教會." 一九〇六年 (明治三九年) 二月一〇日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06.html. Accessed February 21, 2017.
- . "不親切なる伝道者." 一九〇六年 (明治三九年) 二月三日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06.html. Accessed January 22, 2017.
- . "偶像に遠ざかれ." 一九一二年 (大正一年)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12.html. Accessed January 8, 2017.
- . "伝道不振の原因." 一九一三年 (大正二年)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13.html. Accessed February 21, 2017.
- . "煙の宗教." 一九一四年 (大正三年) 一月一五日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14.html. Accessed February 21, 2017.
- . "証人の特色." 一九一四年 (大正三年) 一月十九日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

- 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14.html. Accessed February 21, 2017.
- _____. “諸教會の弱点.” 一九一八年 (大正七年) 一〇月三日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18.html, Accessed February 21, 2017.
- _____. “理想のホーリネス伝道者.” 一九二二年 (大正十一年) 五月四日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22.html. Accessed February 21, 2017.
- _____. “聖潔派の特徴.” 一九三三年 (昭和八年) 『中田重治論說選集』: オリーブの油搾りのゲッセマネ.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33.html. Accessed February 21, 2017.
- _____. “預言者の確言,” 一九三三年 (昭和八年) 『中田重治論說選集』: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Namiki/3294/book35_1933.html. Accessed April 11, 2017.

土肥昭夫.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史』. 東京: 新教出版社, 1980.

<기타 자료>

- 동양선교회(聖潔敎)한국선교.” <평양대부흥>. <http://www.1907reviv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 Accessed March 12, 2017.
- 목창균. “사중복음의 기원.” 성경신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sgti.kehc.org/data/person/mok/sungyul-theology/3.htm>. Accessed February 21, 2017.
- 박명수. “만국성결연맹, 동양선교회, 그리고 한국성결교회.” 성경신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gti.kehc.org/data/person/mspark/3.hwp>. Accessed February 7, 2016.
- 박문수. “어니스트 길보른(Ernest A. Kilbourne)의 생애와 선교사역 ⑩.” <기독일보>.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 Accessed February 12, 2017.
- 정 빈. “성서학원의 형편.” <그리스도 신문>. 1906년 5월 10일.
- 조중남. “한국 성결교회의 신학적 배경과 기원.” 성경신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sgti.kehc.org/data/person/cho/02.htm>. Accessed February 11, 2017.
- 홍용표. “단 데이트 박사, ‘앨벗 심슨의 사중복음의 복음주의 역사학적 이해’ 논평.” <http://m.blog.daum.net/hongpyp/602>. Accessed February 23, 2017.
- _____. “만국성결교회 창립자 마틴 냅이 사도 예언운동의 선구자였나?”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buN0&articleno=432. Accessed

sed February 3, 2017.

_____. “‘순복음’ Full-gospel이란 말을 누가 조어했고 누가 번역했나?” <http://blog.daum.net/hongpyp/28>. Accessed January 8, 2017.

Bundy, David. “From Christendom to Pentecost: The ‘Pentecostal’ Ecclesiology of Martin Wells Knapp and the Radical Holiness Movements I.”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특강>.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2015년 3월 13일.

Hanes, Pavel. “What is the ‘Full Gospel’?” <http://www.pavelhanes.sk/wp-content/uploads/2015/10/WhatIsFullGospel.pdf>. Accessed January 12, 2017.

Parham, Charles F. ed. *The Apostolic Faith* 2. 3 (Topeka, KS: January, 1900).

“Full Gospel.”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Full_Gospel. Accessed May 3, 2016.

“Oriental Mission Society.” http://protestantism.enacademic.com/455/Oriental_Mission_Society. Accessed January 11, 2017.

“東洋宣教會.” 위키백과. <https://ja.wikipedia.org/wiki/%E6%9D%B1%E6%B4%8B%E5%AE%A3%E6%95%99%E4%BC%9A>. Accessed March 10, 2017.

“聖書信仰.” 위키백과. <https://ja.wikipedia.org/wiki/%E8%81%96%E6%9B%B8%E4%BF%A1%E4%BB%B0>. Accessed February 15, 2017.

鈴木正和. 필자에게 보낸 개인적인 e-mail 중에서. jesusgate@daum.net, March 31, 2017.

“中田重治.” (なかだ じゅうじ). 위키백과. <https://ja.wikipedia.org/wiki/%E4%B8%AD%E7%94%B0%E9%87%8D%E6%B2%BB>. Accessed January 22, 2017.

Abstract

The Origin, History and Meaning of Holiness Full Gospel, 純福音, and 순복음

Lee, Chang-Soung

Although “Full Gospel,” “純福音,” and “순복음”(sunbokum) are very important words in Holiness movement, but there has been no comprehensive historical inquiry about them. Therefore, this article studied the origin and transitions of “Full Gospel,” the process and meaning of the translating “Full Gospel” into “純福音,” and then into “순복음” in the history of American, Japanese, and Korean Holiness movement as long as materials were available. In 1839, “Full Gospel” was used by Charles G. Finney for the first time; in 1906, Japanese Nakada Juji translated “Full Gospel” into “純福音.” Around 1908, Korean Jang—ha Lee, etc., might translate “純福音” into “순복음,” and then after 1923 “순복음” has been written.

For Holiness people, Full Gospel(純福音, 순복음) was the biblical, christological, pneumatological, restored, whole, and Apostolic Gospel, and has the multiple aspects: Rebirth, Entire sanctification, Healing, and the Second Coming. Holiness Full Gospel regarded entire sanctification as the same category with the Spirit baptism. For Finney and Mahan, Full Gospel included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Boardman got Healing into Full Gospel, and it was the different

point from Finney and Mahan. Simpson added the Second Coming, and made Full Gospel more systematic and fourfold. For Knapp, most of all, Full Gospel was the gospel which was not destroyed by higher criticism. Under the influence of Knapp, Japanese and Korean Holiness people, Juji, Jang-ha Lee, Gun Lee, and Ki-sam Kim, etc., understood Full Gospel as pure gospel which was not damaged by higher criticism, so they translated Full Gospel into 純福音,” not “全き福音.”

주제어

성결, Full Gospel, 고등비평, 純福音, 순복음

Holiness, Full Gospel, Higher Criticism, 純福音, 순복음

논문투고일: 2017. 4. 6.

논문심사일: 2017. 5. 29.

논문확정일: 2017. 5. 30.